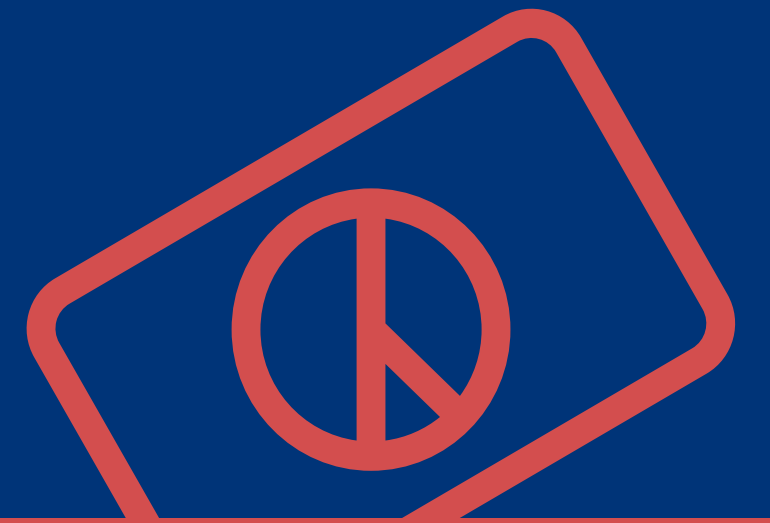


시민소통, 정보복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부산의 미디어 5대 정책 제안



제안 배경

- ▶ 지역의 건강한 공론장 형성 및 강화
- ▶ 풀뿌리 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발전
- ▶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함양으로 민주 시민 육성



장기적인 코로나 팬데믹은 소통 및 관계의 단절을 야기하여 사회적 고립과 양극화, 디지털 격차와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허위 정보, 혐오, 차별의 목소리가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토론과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이 더 부각되기도 한다.

정보·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는 시민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공공재이자 지역과 공동체를 연결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 기제이다. 미디어를 통한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특히 부산은 문화영상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의 의미 있는 미디어 자산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공론장을 만들고 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시민중심의 미디어지원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그 영향력으로 인해 ‘시민의 미디어 기본권’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이다. 시민이 만드는 미디어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시민이 수동적인 미디어 소비자로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소통하여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며 소외된 사람들의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디어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 미디어 스타트업이 육성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면 지역소멸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한다.

이에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약칭 부산민언련)은 부산시장 후보에게 지역의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미디어의 공공적 가치를 지원하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제안 정책

01

부산시 기자실 운영중단, 시민브리핑룸 신설

02

부산시 언론홍보비 집행 및 미디어 공적기금 지원 개혁

03

청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강화

04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실현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05

계층별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부산시 기자실 운영중단, 시민브리핑룸 신설

정책 필요성

- 기자실은 언론사 기자와 공무원 사이에 위계, 기자단 특권이 존재하게끔 하는 공간.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중앙기자실, 전국기자실, 경제지 등으로 구분하여 소수만 점유하는 기자실 운영 필요성 의문
- 부산시에는 2개의 기자실, 1개의 기자회견장이 있지만 부산시민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 없음
- 특정 언론에 대한 특권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제를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 필요
- 기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시민을 위한 시민브리핑룸(가칭)을 신설하여 건강한 지역 공론장 형성에 기여
- 시민브리핑룸을 부산시민의 오프라인 언로(言路)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여론형성과 소통강화의 역할 기대

추진 과제

- 기존 공보역할 담당한 기자실 운영 중단하고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완전 개방 추진
- 시민 의견 개진 및 시민기자회견 등 가능하게 하는 시민브리핑룸 신설
- 시정 공보와 함께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질문이나 요구사항, 기자회견 자유롭게 개진할 있는 공간으로 운영



부산시 언론홍보비 집행 및 미디어 공적기금 지원 개혁

정책 필요성

- 광고 또는 홍보 예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전체 예산 규모도 정확하게 집계되지 못하는 상황
- 여러 부서가 관련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통합적 관리 되지 못하는 실정, 언론홍보비 집행 예산 증빙 서류 기입 및 처리 등 투명성 제고 필요
- 디지털 시대 지역 언론 산업에 대한 재정적, 공적 지원 통합 및 재정비 필요
- 뚜렷한 집행기준 없이 나눠주기식 집행은 결국 건강한 지역의 공론장 훼손
- 부산시 홍보예산 집행기준 마련 및 새로운 공적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내 논의구조가 필요
- 민관이 참여하는 혁신체계를 구성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해 지역언론의 위기와 관연유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청산

추진 과제

- 부산시, 구/군 전체 공고, 광고, 홍보, 협찬 등 관련 분야의 예산과 기획과 집행을 통합 관리하는 투명한 기준과 시스템 마련
- 부산시 홍보예산 집행 및 지역언론 지원 정책 종합 평가와 투명성, 공정성, 지역언론 활성화 위한 방안 연구 진행 (전문가 및 시민사회 참여)
- 부산시 홍보예산 집행기준, 새로운 공적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내 논의구조 구성
- 신문, 방송, 지역종합유선 등 각각 제정된 부산시 지역언론 지원조례 및 부산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산시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 통합
- ‘부산시 언론광고 및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 ‘부산시 통합미디어발전지원 조례’ 제정



청년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강화

정책 필요성

- 지역의 다양한 공론장 생성을 위해 공적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공적 미디어기업 육성 및 지원 필요
- 푸드트럭, 바리스타 등 특정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부산시의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인식 대전환 필요
- 다양한 영역 특히 문화영상도시라는 부산지역의 특화된 청년 일자리 정책 필요
- 청년들의 미디어기업 창업 지원을 통해 영상과 미디어 분야의 인프라 확충
-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콘텐츠와 플랫폼 생성으로 세대 간 소통 강화

추진 과제

- 부산시의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사업에 '미디어/영상/문화 콘텐츠 스타트업' 분야 포함
- 지역 기반의 비영리 청년미디어기업(마을미디어기업) 수요 조사 및 지원사업 계획 수립
- 청년 미디어 창업과 육성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및 예산 배정
-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청년 미디어 콘텐츠를 생성·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실현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정책 필요성

- 모든 시민들이 지역, 소득, 교육수준, 장애, 연령, 성별 등에 따른 격차 및 차별 없이 평등하게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필요
- 시민의 미디어기본권보장 및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을구성원이 직접 운영하고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필요
- 디지털 환경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소통 확산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독립적이고 비영리적 특성을 지닌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공적지원 필요

추진 과제

- 광역/기초단체 단위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부산 마을공동체 미디어지원 센터’ 설립
- 개관 예정인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 준비 과정에서 진행한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사업운영 컨설팅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부산 최초 공동체라디오 연제FM 지원
-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계층별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정책 필요성

-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평가하는 능력 중요
- 특히 인터넷 기반 디지털 미디어 공간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취약. 아이들 사이의 미디어 격차를 줄여 디지털 시민으로서 활동하도록 제도권 교육이 지원하는 것이 중요
-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계층별, 세대별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격차 벌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필요.
- 상업주의에 기반을 둔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혐오 확대 재생산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디어 현실을 고려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
- 이 같은 목적으로 2021년 5월 26일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지원조례' 제정되었으나 적은 예산 배정과 소극적 운영으로 정책 효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조례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예산 배정과 사업 추진으로 미디어 격차 줄이고 사회통합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필요

추진 과제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중년, 노년층에 대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생애주기별 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실질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규모의 예산 확보 및 인력 배정
- 시급한 과제로 미디어 소외계층(장애인, 다문화 어린이, 노인 등)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우선 실시
-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문제, 혐오 차별 부추기는 언론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미디어교육과정 수립
- 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비롯, 향후 설립될 미디어센터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거점으로 활용
-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함께 위 과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